

開會辭

오늘 전국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93전국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전국 4천여 건축사가 2천년대를 향한 건축문화의 발전방향과 건축구도의 좌표를 새 한국, 새 환경, 새 건축으로 설정하고, 역사적 전환과 시대적 대변혁기에 응전할 수 있는 새 시대의 건축사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건축은 이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행사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대축제로 발전,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지금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열망하던 신선한 바람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고질적인 병폐로 누적되어 있던 정신적 먼지와 구조적으로 낡은 관행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발전과 성장은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일의 번영과 선진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낡은 제도 낡은 관습과 사고 낡은 생활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서냉전 종식이후 국제환경은 새로운 경제냉전과 포성없는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고도의 정보화 사회구조의 눈부신 발달은 종래의 일반적 개념에 근원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대외적인 변화의 물결과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개체보다는 전체를 우선하는 사고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협과 양보의 미덕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은 사회, 성숙한 사회, 선진화된 사회를 이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우리 모두 이 시대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꿈과 의지를 이 사회에 보다 건전하게, 보다 깊숙히, 보다 넓게, 투영시켜 봅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인의 위상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 모두를 다시한번 성찰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으며, 아울러 우리 모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18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영희

激 勵 辭

오늘 93년 건축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 어언 2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건축기술 발전과 건축문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뜻을 다해주셨으며, 이제 4천여 회원의 구심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분히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이 건축사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

현재 국내외의 정세를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32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성장위 주 경제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전도와 부정부패 등 이른바 한국병을 과감히 치료하고 신한국 건설에 정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사 여러분들에게는 창의와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임무를 수임받은 공인입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행정의 쇄신에 앞장서 주시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은 토지위에 구축되는 반영구적인 시설로써 일단 시공되고 난 후에는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인천 한국아파트 저수조 사고 등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 건축물 사고는 우리 다같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건축설계분야의 자생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여러분의 비장한 각오와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듭니다.

그 밖에 주택 양산체계의 구축과 건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표준화, 규격화와 설계도서의 표준화 등 우리 건축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주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창의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건축사협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건축사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후에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친 본 대회와 '93한국건축전, 국제건축자재전 등 일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며, 여러분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건축계가 새롭게 도약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건축사대회가 모든 건축인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들의 앞날에 번영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 3월 18일

건설부장관 고 병우

'93전국건축사대회·'93한국건축전 이모저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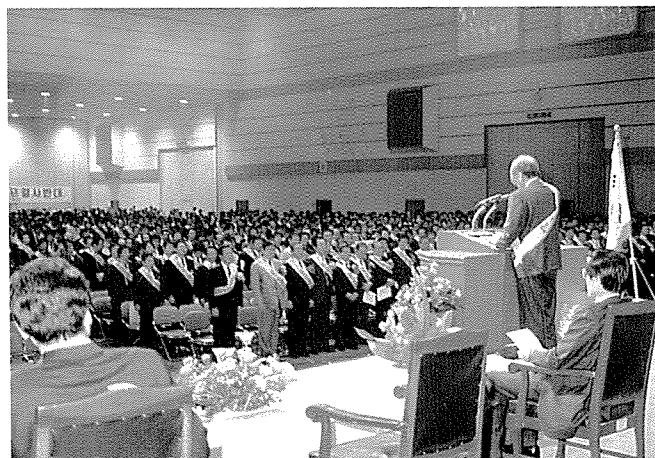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 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전국의 4천 5백여 회원 및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93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새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자기성찰과 위상을 제고하여 협회를 중심으로한 전국건축사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을 통한 협회발전 및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결의대회를 비롯한 특별강연회,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이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일의 번영과 선진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넓은 관습과 사고, 넓은 생활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하고, 「우리 모두 이시대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현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꿈과 의지를 이 사회에 보다 건전하게, 보다 넓게 투영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는 건축사법 개악반대 결의대회가 개최되어 회원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는 물론, 개악조항의 발의를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도 조성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93한국건축전에는 연인원 8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②



③



⑥



⑦



⑧



- ① '93 전국건축사 대회 전경
- ② 결의문 채택 광경
- ③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토론회
- ④ '93 한국건축대제전 ('93한국건축전) 테이프 커팅
- ⑤ '93 한국건축전 대상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는 내빈들
- ⑥ 개회사를 하는 이영희 본협회장
- ⑦ 건설부장관 격려사를 대독하는 이건영 건설부차관
- ⑧ 축사를 하는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
- ⑨ 대회기 전달식
- ⑩ '93 한국건축전 시상식

⑤



⑨



⑩